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과 부양행동

최정혜*

경상대학교 가정교육과,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 책임연구원*

Consciousness and behavior of married-teachers to support their aged parents

Jeong-Hye, Choi*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consciousness and behavior of married-teachers to support their aged-parents.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239 married-teachers, in the Gyeongnam area, Korea, living with at least one of their old-parents. Statist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SPSS/WIN programs including frequencies,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Degree of consciousness in supporting married-teachers' aged parents was 3.98 on a scale of 0-5.0. The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the results were sex, living-distance, and familism.
- 2) Degree of behavior in supporting married-teachers' aged parents was 3.07 on a scale of 0-4.0. The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the results were number of child, living-distance, economic level of aged parents, and self-esteem.
- 3) There wa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ciousness and behavior of married-teachers to support their aged-parents.
- 4)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most effective variable of the married-teachers' behavior for supporting aged-parents was supporting consciousness.

주제어(Key Words) : 기혼교사(married-teachers), 노부모부양의식(consciousness for supporting aged-parents), 노부모부양행동(behavior for supporting aged-parents), 관련변인(related variable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fund of Research Promotion Program(RPP-2006-011),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 교신저자 : 최정혜(jhchoi7@gnu.ac.kr)

I. 서 론

오늘날 우리사회의 큰 이슈중의 하나가 고령화에 따른 노부모부양문제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그 대비책이 충분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에 이미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이면 14.3%로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가족 당 평균 자녀수가 크게 줄어들어 현재 12.6%인 노인 부양지수가 2018년에는 19.7%로 증가하여 생산연령 인구 약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되어 (통계청, 2006) 노인부양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부모부양은 현재까지 성인자녀에 의한 가족부양이 주를 이루고 있어, 성인자녀가 노인에게 경제적, 서비스적,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제공하는 일차적인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두섭·박경숙·이세용, 2000; 김미혜·신경림·강미선·강인, 2006; 김정석·김익기, 2000; 보건복지부, 2005; 조병은, 2006; 최정혜, 1992, 1994). 즉 우리나라는 가족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부모자녀관계가 서구사회에 비해 더 상호의존적이고, 노부모에 대한 자녀부양이 효로 규범화 되어 있어 성인자녀의 지원이 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경신·이선미, 1998; 김미혜외 3인, 2006; 윤현숙, 2003; 최정혜, 1992, 1994; 한민아·한경혜, 2004).

그러나 사회변화에 따른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의 증가,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 전반적인 변화는 성인자녀의 노부모부양에 대한 의식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성인자녀인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가치관 역시 변화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교사는 교육과정을 결정짓는 한 요소로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Brown, 1980; 오윤희·채정현, 2005 재인용)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교사자신의 가치관을 전수하게 된다. 즉 교사가 수업하는 과정에서 교사 가치관이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볼 때 교사의 노부모부양가치관 역시 미래사회 구성원이 될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화두인 노부모부양에 대한 교사들의 가치관이 어떠한지 규명하는 것은 미래사회의 노부모부양문제를 해결하는 방향과 관련하여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부모부양의식은 유교적 이념에 기반을 둔 전통사회에 비하면 현저히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생활 속에는 전통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으며(서소영·김명자, 1998; 최정혜, 1998), 또 가족을 실천비판적 관점에서 볼 때(오윤희·채정현, 2005) 교사의 노부모부양 가치관에 대한 성찰은 우리사회의 가족과 노인문제를 보는 견해와 매우 밀착되어 있다고 생각되므로 교사의 노부모부양가치관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노부모부양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성인자녀의 노부모부양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기혼교사를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며느리를 대상으로 부양의식과 부양행동, 부양부담, 부양스트레스 등에 대해 연구되었으며, 그 외 주부양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조병은, 2006). 선행연구에서 노부모를 부양하는 주 부양자녀는 노부모가 의존적일 때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부양부담을 느낀다고 하고(김경신·이선미, 1998; 김명자·이윤정, 1995; 윤순덕·한경혜, 2004; 이가옥·이미진, 2000; 한경혜·윤성은, 2002). 특히 중년기에 있는 성인자녀는 위로는 노부모부양과 아래로는 청소년자녀의 양육을 함께 충족시켜야하는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여서 노부모부양 부담을 더욱 과중하게 느끼고 있다고(김경신·이선미, 1998; 김명자·이윤정, 1995; 민무숙, 1995; Whitbeck, Hoyt & Tyler, 2001)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인 성인자녀의 노부모부양의식이나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은 파악할 수 있으나, 교사가 어떤 부양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거의 접근되지 않은 중등학교의 기혼교사를 중심으로 노부모부양의식과 부양행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 및 부양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함께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모색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은 어떠하며, 관련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은 어떠하며, 관련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과 노부모부양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고찰

1. 기혼교사의 노부모 부양의식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은 따로 연구된 바가 거의 없으므로 일반기혼자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과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부양의식이란 개인이 부모부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태도나 의식으로 사회적 또는 도덕적 가치가 내재해 있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한 사회의 부양의식의 변화는 세대 간의 부양에 대한 기대 욕구와 이용 가능한 자원을 예측하게 하므로(이가옥·이미진, 2000) 연구자들은 의식 및 태도의 변화가 부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이란 기혼교사가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태도나 의식을 의미한다 하겠다.

부모부양의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부모노후에 대한 책임감으로 연결되며 이러한 규범은 가족의 전통적인 보호 기능에 대한 일반적 지표로 여겨진다(Aquilino & Supple, 1991; Lerner, Somers, Chirboga & Tierney, 1991). 또 부양에 대한 의무감은 상환되지 않은 의무, 가족 충성, 효성, 염려 등의 개념을 포함하며 부모부양의무감은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조활동 즉 부양행동에 대한 원인으로 주장되어 왔다(서소영·김명자, 1998).

특히 노부모 부양이 주로 가족부양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기혼자녀의 노부모 부양의식이 노부모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노부모부양의식 변

수가 노부모부양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최정혜, 1998). 부양의식과 관련 된 연구로서 장남이 노부모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보고된 일부 연구(김태현, 1994)도 있으나, 기혼자녀의 부양의식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도 하여(서병숙·이신숙, 1991; 이가옥외, 1990; 최정혜, 1998, 1999; 한은주·최배영, 1997) 일관된 결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2. 기혼교사의 노부모 부양행동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 역시 따로 이루어진 연구가 없으므로 기혼자녀를 대상으로 한 부양행동을 살펴봄으로써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과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부양이란 자기 자신의 노력만으로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노부모 부양은 정서적 부양, 서비스적 부양, 경제적 부양 등의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김태현, 1994; 김명자·손서희, 2005). 즉 노부모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위로움과 고독을 달래주는 정서적 부양, 가정 내에서의 노부모의 신체적 독립과 가사운영 및 가정생활에 필요한 청소, 세탁, 심부름, 간병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적 부양, 그리고 금전이나 물질을 제공하는 경제적 부양 등이다.

노부모부양과 관련한 국내의 연구에서 노부모는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직접적인 신체적 부양을 제공받는 것보다 자녀로부터 애정과 사려 깊은 관심이나 대화 등의 정서적 부양을 원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명자·손서희, 2005; 최정혜, 1998; Bengston, 1989). 노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 기능의 감퇴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이 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서비스 부양의 중요성이 증대되며, 또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은 생계유지 및 기본적 욕구충족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이므로 기혼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은 성인자녀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김경신·이선미, 1998; 김명자·이윤정, 1995; 최정혜, 1998; Dewit, Wister & Burch, 1988; Walker, Pratt & Nancy, 1992).

보건복지부(2005)의 조사 결과 노후에 건강이 악화될 경우 자녀와 살겠다는 응답비율이 50%이며, 여성개발원(2005)의 조사에서도 노인돌봄비용에서 가족의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44.6%) 나타나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부담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주 부양자녀가 대부분 딸이고 노부모와 부양자녀가 동거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다. 또 노부모 부양에 있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많으며, 노부모가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생활하려는 의식이 강하고 가족관계도 우리나라에 비해 선택적이며 상호애정에 기초한 경우가 많아서(송지은·Marks, N. F., 2006; Walker, Pratt & Nancy, 1992) 기혼자녀의 노부모 부양부담이 우리나라처럼 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노부모 부양의식과 부양행동과의 관계

기혼자녀의 노부모부양의식이나 부양행동을 각각 연구한 논문은 많이 있으나 기혼자녀의 노부모부양의식과 부양행동과의 관계를 함께 분석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서 노부모부양의식과 부양행동을 함께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의식이 늘 행동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혼자녀의 부양의식과 부양행동의 관계를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하여 비교적 근접한 관련 연구를 통해 이를 기혼교사와 연계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병숙과 이신숙(1991)의 농촌기혼 여성의 노부모 부양의식과 부양수행도에 관한 연구에서 농촌지역 기혼여성의 부양의식은 부양형태별 수행과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규명하였고 특히 부양형태 중에서 부양의식과의 상관도가 가장 높은 부양은 정서적 부양이고, 가장 낮은 상관관계는 경제적 부양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농촌지역 기혼여성의 부양의식은 4점 만점에 3.11점으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부양수행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8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딸과 며느리의 부양의식과 부양수행도에서 부양의식은 딸이 며느리보다 높고 부양수행도는 아들과 함께 부양의 공유된 책임을 갖는 며느리(3.40)가 딸(3.36)보다 부양수행도가 앞선다고 밝힌바 있다.

서소영과 김명자(1998)의 며느리의 시부모부양에 따른 보상, 부양의식, 부양행동 분석에서 직접적으로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의식과 부양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의식과 부양행동 점수를 각각 보고

하고 있다. 즉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의식은 5점 만점에 3.13점으로 보고하고,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행동은 5점 만점에 3.06점으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통해 볼 때 성인자녀인 며느리의 부양의식점수가 부양행동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선행연구에서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의식은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임을 보고하면서 부양의식이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였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규범적인 측면에서의 부양의식을 토대로 부양행동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 Choi & Yoo(2001)의 연구에서도 기혼자녀의 노부모 부양의식과 부양행동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기혼자녀의 노부모부양의식은 5점 만점에 4.09인데 비해 부양행동은 4점 만점에 2.98점으로 규명하여 기혼자녀의 노부모부양의식이 부양행동을 앞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볼 때 부양의식과 부양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한계는 있지만 기혼자녀의 부양의식은 부양행동을 앞서면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과 부양행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4. 노부모부양의식과 부양행동의 관련변인

기혼자녀의 노부모부양의식에 대한 관련변인 연구는 주로 성인자녀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과 부양의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인데, 기혼자녀의 노부모 부양의식 관련 변인으로는 교육수준, 연령, 경제적 상태, 자녀수, 종교, 형제수, 동거기간 등이 보고된바 있다(서병숙·이신숙, 1991; 최정혜, 1998; 한은주·최배영, 1997). 또 다른 변인으로 성별, 직업, 출생순위, 결혼상태 등의 변인들이 보고되기도 하였다(서소영·김명자, 1998).

기혼자녀의 노부모 부양행동에 유의한 변인으로는 기혼자녀의 성별, 연령, 소득수준, 출생순위, 직업, 거주형태 등이 보고되었다(김명자·손서희, 2005; 최정혜, 1998; Choi & You, 2001). 즉 딸은 아들보다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가 강하고 아들은 딸보다 부모에 대한 expectation 의무감을 크게 지각하고 있으며(김미혜외 3인, 2006; 조병은, 2006; 최

정혜, 1992, 1994),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은 딸이 우세하고 의사결정, 재정적 도움과 같은 물질적인 제공은 아들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길양·김태현, 1993; 서소영·김명자, 1998). 서구의 경우는 딸이 아들보다 병약한 노부모를 부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송지은·Marks, N. F., 2006; Walker, Pratt & Nancy, 1992). 노부모부양은 성인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노부모와의 접촉빈도가 높고 정서적 지원이 많은 경향이고(강유진·한경혜, 1997), 부양자녀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민무숙, 1995; 김명자·이윤정, 1995),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 및 의무감은 여전희 장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5).

한편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부정적 혹은 긍정적 관심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선행연구에서 노부모-성인자녀관계에 유의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어(신효식, 1996; 최정혜, 1992) 본 연구에서 관련변인으로 사용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가족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부모자녀관계가 매우 밀접하여(최정혜, 1992, 1994; 한민아·한경혜, 2004) 가족가치관도 관련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그 외 기혼자녀의 노부모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노부모 변인이 있는데, 노부모의 연령, 경제상태, 건강상태, 거주형태 등이 관련변인으로 보고되어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의 수입이 적을수록 자녀들의 부양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소영·김명자, 1998; 김명자·이윤정, 1995; Tompson & Walker, 1984). 또 동거하는 성인자녀들이 별거하는 자녀보다 더 많은 부양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윤순덕·한경혜, 1994; 조경자·한동희·조은희, 1996).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상남도(10개시·군)에 거주하며, 만 60세 이상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살아있는 중등학교 기혼교사이다. 예비조사는 2006년 8월 1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기혼교사 30명에게 실시되었고, 결과 분석 후 설문지

를 수정하여 본 조사는 200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유의표집 되었으며, 총 450부를 경남지역 교사들에게 배부하여 회수된 320부 중에서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293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보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을 보면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조금 더 많고(52.9%), 기혼교사의 연령은 35세 미만이 가장 많으며(29.7%) 다음으로 4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28.7%). 기혼교사의 평균연령은 40세로서 기혼교사들이 중년기임을 보여준다. 교육수준은 2/3정도가 대학졸업이고, 1/3정도는 대학원졸업으로 나타나 높은 교육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교사집단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출생순위도 첫째가 가장 많고(46.1%), 거주 지역은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나타났으며(84%), 종교를 가진 기혼교사가 종교를 가지지 않은 교사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54.3%). 자녀수는 2명이 가장 많고(55.3%), 맞이연령은 '7세 이하'가 가장 많으며(28.4%), 가정의 월수입정도는 400만원-5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27.6%) 나타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교사 부모의 건강상태는 '조금 좋지 않다'가 가장 많고(54.9%), 부모의 생존상태는 '양친생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59.7%). 기혼교사 부의 연령은 65세-70세미만이 가장 많고(28.5%), 모의 연령은 65세 미만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36.5%). 기혼교사 부의 평균 연령은 68.5세, 모의 평균연령은 66.7세로 나타나 기혼교사의 노부모의 평균연령이 60대 후반임을 보여주었다. 기혼교사 부모의 경제상태는 '보통이다'가 가장 많고(64.8%), 부모의 거주형태는 '노인 단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68.6%). 노부모부양책임은 '아들·딸 모두'라는 의식이 가장 높고(75.4%), 대부분 노후에 동거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85.0%) 나타났다. 노부모와의 물리적 거리는 '같은 시(도)'가 가장 많고(45.1%), 노부모의 일상생활능력은 '아주 잘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65.9%), 기혼교사 부모의 일상생활능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함을 보였다. 기혼교사의 부모부양 년 수는 20년 이상이 가장 높고(33.3%) 다음으로 5년 미만으로 나타나(22.4%) 기혼교사의 1/3정도가 노부모를 장기부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93)

| 구 분 | | N (%) | 구 분 | | N (%) |
|-------------|------------|-----------|------------|--------------|-----------|
| 성별 | 남교사 | 155(52.9) | 종교 | 없음 | 134(45.7) |
| | 여교사 | 138(47.1) | | 있음 | 159(54.3) |
| 연령 | 35세 미만 | 87(29.7) | 자녀수 | 1명 | 104(35.5) |
| | 30세~40세 미만 | 51(17.4) | | 2명 | 162(55.3) |
| | 40세~45세 미만 | 71(24.2) | | 3명 이상 | 27(9.2) |
| | 45세 이상 | 84(28.7) | | | |
| 교육 수준 | 대학졸업 | 185(63.1) | 거주 지역 | 농촌 | 47(16.0) |
| | 대학원졸 | 108(36.9) | | 도시 | 246(84.0) |
| 출생 순위 | 첫째 | 135(46.1) | 경제 교류 유형 | 쌍방 형 | 111(37.9) |
| | 둘째 | 70(23.9) | | 자녀수혜 형 | 47(16.0) |
| | 셋째 이상 | 83(28.3) | | 자녀지원 형 | 100(34.1) |
| | 외동 | 5(1.7) | | 무교환 형 | 35(11.9) |
| 만이 연령 | 7세이하 | 76(28.4) | 가정의 월수입 정도 | 200만원 미만 | 14(4.8) |
| | 초등생 | 70(26.1) | | 200~300만원 미만 | 79(27.0) |
| | 중·고생 | 68(25.4) | | 300~400만원 미만 | 75(25.6) |
| | 대학생 이상 | 54(20.1) | | 400~500만원 미만 | 81(27.6) |
| 부모의 일상생활 능력 | 조금 못하신다 | 26(8.9) | 부모 생존 상태 | 양친 생존 | 175(59.7) |
| | 조금 하신다 | 74(25.3) | | 아버지만 생존 | 20(6.8) |
| | 아주 잘하신다 | 193(65.9) | | 어머니만 생존 | 98(33.4) |
| * 부 연령 | 65세 미만 | 48(24.9) | * 모 연령 | 65세 미만 | 100(36.5) |
| | 65-70세 미만 | 55(28.5) | | 65-70세 미만 | 70(25.5) |
| | 70-75세 미만 | 52(26.9) | | 70-75세 미만 | 55(20.1) |
| | 75세 이상 | 38(19.7) | | 75세 이상 | 49(17.9) |
| 부모의 건강상태 | 매우 좋지 않다 | 24(8.2) | 부모의 경제상태 | 많이 어렵다 | 20(6.8) |
| | 조금 좋지 않다 | 161(54.9) | | 조금 어렵다 | 63(21.5) |
| | 건강하다 | 108(36.9) | | 보통이다 | 190(64.8) |
| 부모의 거주형태 | 노인 단독 | 201(68.6) | 부모 부양 책임 | 넉넉하다 | 20(6.8) |
| | 장남부부와 동거 | 43(14.7) | | 장남 | 22(7.5) |
| | 장남외 아들부부와 | 31(10.6) | | 아들들 | 24(8.2) |
| | 딸부부와 동거 | 11(3.8) | | 아들·딸 모두 | 221(75.4) |
| | 시설(병원) | 7(2.4) | | 부모 자신 | 14(4.8) |
| 부모와 물리적 거리 | 동거 | 32(10.9) | * 부모 부양 년수 | 지역사회·국가 | 12(4.1) |
| | 같은 동네 | 32(10.9) | | 5년 미만 | 13(20.6) |
| | 같은 시(도) | 132(45.1) | | 5년~10년 미만 | 11(17.5) |
| | 다른 시(도) | 97(33.1) | | 10년~15년 미만 | 9(14.3) |
| 노후에 동거 희망 | 원한다 | 44(15.0) | 15년~20년 미만 | 9(14.3) | |
| | 원하지 않는다 | 249(85.0) | 20년 이상 | 21(33.3) | |

* 결측치를 제외한 상태에서 백분율을 계산했음.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조사대상자의 사회적·구학적인 배경을 알아보는 일반문항과 노부모부양의식 척도, 노부모부양행동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가족가치관 척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내용 및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노부모부양의식 척도는 최정혜(1998)의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여 경제적 부양의식 4문항, 정서적 부양의식 4문항, 서비스적 부양의식 4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아주 반대'에 1점에서 '아주 찬성'에 5점까지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뢰도 Cronbach' α =.91로 나타났다. 노부모부양행동 척도는 Choi & Yoo(2001)의 척도 18문항을 수정하여 경제적 부양행동 4문항, 정서적 부양행동 4문항, 서비스적 부양행동 4문항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서 '전혀 없다'의 1점에서 '지극히 있다'의 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행동이 많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 α =.86이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와 Krause & Tran의 척도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하여 만든 최정혜(200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전체 4문항 중에서 2문항은 긍정적인 문항, 2문항은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통계처리 시 역산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72 이다. 가족가치관 척도는 최정혜(1998)의 척도를 수정하여 결혼 및 자녀출산의 목적, 장남의 의무, 부모의 성공, 아들의 의미 등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아주 반대' 1점에서 '아주 찬성'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뢰도 Cronbach' α =.74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

분율, 신뢰도 분석, 평균, t-test, 일원변량분석, Duncan Multiple Range Test,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 규명을 위해 기혼교사의 자아존중감, 가족가치관을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그 기준은 평균값으로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 및 관련변인

<연구문제 1>을 규명하기 위하여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98점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관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은 높게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결과는 선행연구(최정혜, 1998; 한은주·최배영, 1997)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서소영과 김명자(1998)의 3.13점보다는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 차이는 연구대상자가 기혼교사인 자녀와 며느리라는 차이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을 하위영역별로 보면 경제적 부양의식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서적, 서서비스적 부양의식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기혼교사의 경제적 부양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노부모부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 생각된다. 본 결과는 선행연구(서소영·김명자, 1998; 최정혜, 1998)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한편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관련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표 2> 기혼교사들의 노부모부양의식 (N=293)

| 구분 | M SD |
|-------------|------------|
| 전체 노부모 부양의식 | 3.98 (.57) |
| 경제적 부양의식 | 4.10 (.61) |
| 정서적 부양의식 | 3.98 (.63) |
| 서비스적 부양의식 | 3.84 (.64) |

〈표 3〉 기혼교사들의 관련변인에 따른 노부모부양의식 (N=293)

| 변인 | N | M | F(t) D | |
|-------------|-------------------|-----|--------|----------|
| 성별 | 남교사 | 155 | 4.14 | 5.51 *** |
| | 여교사 | 138 | 3.79 | |
| 연령 | 35세 미만 | 87 | 4.00 | 1.15 |
| | 35-40세 미만 | 51 | 3.88 | |
| | 40-45세 미만 | 71 | 3.92 | |
| | 45세 이상 | 84 | 4.05 | |
| 출생순위 | 첫째 | 135 | 4.01 | 1.42 |
| | 둘째 | 70 | 3.99 | |
| | 셋째 이상 | 83 | 3.93 | |
| | 외동 | 5 | 3.52 | |
| 가정의 월수입 정도 | 200만원 미만 | 14 | 4.25 | .96 |
| | 200-300만원 미만 | 79 | 3.99 | |
| | 300-400만원 미만 | 75 | 3.97 | |
| | 400-500만원 미만 | 81 | 3.93 | |
| | 500만원 이상 | 44 | 3.98 | |
| 자녀수 | 1명 | 104 | 3.91 | 2.04 |
| | 2명 | 162 | 3.99 | |
| | 3명 | 27 | 4.15 | |
| 부모의 거주형태 | 노인 단독 | 201 | 3.96 | 1.20 |
| | 장남부부와 동거 | 43 | 4.10 | |
| | 장남의 아들부부와 딸부부와 동거 | 31 | 4.02 | |
| | 시설(병원) | 11 | 3.83 | |
| 부모와의 물리적 거리 | 동거 | 32 | 4.29 | B |
| | 같은 동네 | 32 | 3.77 | ** A |
| | 같은 시(도) | 132 | 3.97 | 4.99 A |
| | 다른 시(도) | 97 | 3.95 | A |
| 부모의 경제상태 | 많이 어렵다 | 20 | 3.85 | 1.96 |
| | 조금 어렵다 | 63 | 3.85 | |
| | 보통이다 | 190 | 4.01 | |
| | 넉넉하다 | 20 | 4.09 | |
| 자이존중감 | 낮은 집단 | 149 | 3.94 | -1.20 |
| | 높은 집단 | 144 | 4.02 | |
| 가족가치관 | 낮은 집단 | 154 | 3.80 | *** |
| | 높은 집단 | 139 | 4.17 | -6.01 |

** p<.01. *** p<.001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혼교사의 성별(p<.001), 부모와의 물리적 거리(p<.01), 가족가치관(p<.001) 등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남교사가 여교사보다 노부모부양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노부모부양의식에 있어 성별 차이를 보이는 결과로서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의식, 즉 노부모 부양을 아들이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가치관은 사회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화는 하겠지만 근본적인 가치의식은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선행연구(서소영·김명자, 1998; 최정혜, 1998; 한은주·최배영, 1997)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장남위주의 규범적인 측면에서의 부양의식이 강하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맥락으로 보인다.

또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은 부모와의 물리적 거리가 '동거'일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나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부양의식도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노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아무래도 노부모에게 관심을 더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본 결과는 선행연구에서(한은주·최배영, 1997; 최정혜, 1998) 노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기혼자녀들의 노부모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기혼교사의 가족가치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노부모부양의식이 더 높게 나타나 기혼교사의 가족가치관 정도에 따라 노부모부양의식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는 다시말해서 기혼교사의 가족가치관이 노부모부양의식에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본 결과는 선행연구(최정혜, 1998)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선행연구에서 노부모부양의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인 사회경제적 변인이 본 연구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본 연구가 일반 기혼자녀들과 달리 교사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변인이 통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2.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 및 관련변인

〈연구문제 2〉를 규명하기 위하여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은 4점 만점에 평균 3.07점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수준 이상의 부양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결과는 일반기혼자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김명자·손서희, 2005; 서소영·김명자, 1998; Choi & Yoo,

2001)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으로 기혼교사 역시 일반 기혼 자녀의 부양행동과 비슷한 점수를 보여 교사라고 해서 특별히 부모부양행동이 더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을 하위영역별로 보면 경제적 부양행동이 가장 높고 정서적 부양행동, 서비스적 부양행동의 순으로 나타나 서비스적 부양행동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기혼교사의 경제적 부양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되나 서비스적 부양행동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이 측면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기혼 교사들의 서서비스적 부양행동이 실제로 가장 낮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혼교사가 노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낮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4〉 기혼교사들의 노부모부양행동 (N=293)

| 구분 | M SD |
|-------------|------------|
| 전체 노부모 부양행동 | 3.07 (.37) |
| 경제적 부양행동 | 3.27 (.48) |
| 정서적 부양행동 | 3.10 (.41) |
| 서비스적 부양행동 | 2.87 (.46) |

본 결과는 선행연구(강유진·한경혜, 1997; 김명자·손서희, 2005)에서 서비스적 부양행동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한편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주는 관련변인을 살펴본 결과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수(p<.05), 부모와의 물리적 거리(p<.01), 부모의 경제상태(p<.05), 자아존중감(p<.001)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기혼교사의 자녀수가 많을수록 노부모부양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결과는 기혼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이 성인자녀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부담감 및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김경신·이선미, 1998; 김명자·이윤정, 1995; 최정혜, 1998)와 비교해 볼 때 차이가 나는 결과로서 이는 기혼교사의 가족가치관과 관련되는 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즉 기혼교사가 자녀를 많이 가질수록 가족에 대

한 사랑도 많고 또 그 영향으로 노부모를 부양하는 행동도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녀수 변인은 관련 선행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변인이므로 추후 연구에서 관련변인으로 계속 연구된다면 그 경향성에 대해 밝혀볼 수 있으리라 본다.

〈표 5〉 기혼교사들의 관련변인에 따른 노부모 부양행동 (N=293)

| 변인 | N | M | F(t) D | | |
|-------------|-------------------|--------|--------|--------|--------|
| 성별 | 남교사 | 155 | 3.07 | -.52 | |
| | 여교사 | 138 | 3.09 | | |
| 연령 | 35세 미만 | 87 | 3.07 | 1.33 | |
| | 35-40세 미만 | 51 | 3.05 | | |
| | 40-45세 미만 | 71 | 3.04 | | |
| | 45세 이상 | 84 | 3.14 | | |
| 출생순위 | 첫째 | 135 | 3.09 | .31 | |
| | 둘째 | 70 | 3.05 | | |
| | 셋째 이상 | 83 | 3.09 | | |
| | 외동 | 5 | 3.00 | | |
| 가정의 월수입 정도 | 200만원 미만 | 14 | 3.11 | .33 | |
| | 200-300만원 미만 | 79 | 3.07 | | |
| | 300-400만원 미만 | 75 | 3.04 | | |
| | 400-500만원 미만 | 81 | 3.10 | | |
| 500만원 이상 | 44 | 3.10 | | | |
| | 자녀수 | 1명 | 104 | 3.01 | * A |
| | | 2명 | 162 | 3.11 | 3.70 B |
| 3명 | | 27 | 3.19 | B | |
| 부모의 거주형태 | 노인 단독 | 201 | 3.05 | 1.03 | |
| | 장남부부와 동거 | 43 | 3.14 | | |
| | 장남의 아들부부와 딸부부와 동거 | 31 | 3.15 | | |
| | 시설(병원) | 11 | 3.14 | | |
| 부모와의 물리적 거리 | 동거 | 32 | 3.31 | B | |
| | 같은 동네 | 32 | 3.05 | ** A | |
| | 같은 시(도) | 132 | 3.05 | 4.93 A | |
| 다른 시(도) | 97 | 3.04 | A | | |
| | 부모의 경제상태 | 많이 어렵다 | 20 | 3.10 | * A |
| 조금 어렵다 | | 63 | 3.00 | 3.11 A | |
| 보통이다 | | 190 | 3.08 | A | |
| 넉넉하다 | | 20 | 3.28 | B | |
| 자아존중감 | 낮은 집단 | 149 | 3.00 | *** | |
| | 높은 집단 | 144 | 3.16 | -3.68 | |
| 가족가치관 | 낮은 집단 | 154 | 3.07 | -.55 | |
| | 높은 집단 | 139 | 3.09 | | |

* p<.05, ** p<.01, *** p<.001

<표 6> 기혼교사들의 노부모부양의식과 부양행동 간의 상관관계

(N=239)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1 | 1.00 | | | | | | | | | | | |
| 2 | -.21** | | | | | | | | | | | |
| 3 | -.11 | .55** | | | | | | | | | | |
| 4 | .15** | .02 | -.07 | | | | | | | | | |
| 5 | .06 | .32** | .27** | -.01 | | | | | | | | |
| 6 | -.06 | .29** | .06 | .08 | .05 | | | | | | | |
| 7 | .05 | -.04 | .00 | -.02 | .00 | -.18** | | | | | | |
| 8 | .08 | -.18** | -.15** | -.05 | -.09 | -.31** | -.00 | | | | | |
| 9 | .11 | .01 | .12* | .01 | .10 | .01 | .03 | -.10 | | | | |
| 10 | -.34** | .20** | .18** | -.04 | -.05 | .09 | .00 | -.14* | -.06 | | | |
| 11 | -.28** | .03 | .09 | -.07 | -.07 | -.04 | .06 | -.06 | .02 | .25** | | |
| 12 | .02 | .06 | .17** | -.03 | .08 | .05 | .07 | -.14* | .16** | .03 | .22** | 1.00 |

1: 성별 2: 연령 3: 자녀수 4: 출생순위 5: 월수입정도 6: 부모의 거주형태 7: 부모의 경제상태 8: 물리적 거리 9: 자아존중감 10: 가족가치관 11: 부모부양의식 12: 부모부양행동

* p<.05, ** p<.01

또한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은 부모와의 물리적 거리에서 기혼교사가 부모와 '동거'할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양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거라는 변인이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에 유의한 변인임을 보여주었으며, 본 결과는 선행연구(윤순덕·한경혜, 1994; 조경자·한동희·조은희, 1996)에서 노부모와 동거하는 자녀가 부양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본 결과를 통해 볼 때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에 있어 동거변인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은 부모의 경제상태가 넉넉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부모부양이 더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노부모의 경제조건이 좋을수록 기혼교사인 성인자녀가 노부모 부양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으로서 관련 선행연구(한민아·한경혜, 2004)에서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서로를 지원하는 쌍방향일 때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의 질이 좋아진다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혼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노부모부양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선행연구에서 노부모-성인자녀관계에 유의한 변인으로 보고된바 있는데(신효식, 1996; 최정혜, 1998),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에도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본 결과를 통해 볼 때 기혼교사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노부모부양행동도 높아지는 경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의 향상이 선결과제임을 알 수 있다.

3.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과 부양행동과의 관계

<연구문제 3>인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과 부양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에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독립변인은 기혼교사의 자녀수($r=.17$), 부모와의 물리적 거리

<표 7>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N=293)

| 독립변인 | 노부모 부양행동 | | | | | | | | |
|--------------------|------------|---------|-------------|-----------|---------|-------------|-----------|---------|---------------|
|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 | B | β | t값(유의도) | B | β | t값(유의도) | B | β | t값(유의도) |
| 부모부양의식 | .260 | .392 | 10.55(.000) | .250 | .377 | 10.35(.000) | .247 | .372 | 10.28(.000) |
| 자이존중감 | | | | .125 | .200 | 5.50(.000) | .128 | .205 | 5.66(.000) |
| 부모와의 물리적 거리 | | | | | | | -.049 | -.107 | -2.95(.003**) |
| 상수 | 1.995 | | | 1.566 | | | 1.715 | | |
| F값 | 111.362*** | | | 73.485*** | | | 52.518*** | | |
| R ² | .154 | | | .194 | | | .205 | | |
| R ² 변화량 | .154 | | | .040 | | | .011 | | |

** p<.01 *** p<.001

(r=-.14), 자이존중감(r=.16), 부모부양의식(r=.22) 등으로 나타났다.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독립변인들 중에서 자녀수, 자이존중감, 부모부양의식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부모와의 물리적 거리는 부모부양행동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독립변인 중에서 기혼교사의 노부모 부양행동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인은 부모부양의식으로 나타났다 (r=.22). 즉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은 노부모부양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이 높을수록 노부모부양행동도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결과는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과 부양행동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종속변인에 큰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만을 선택하여 모형에 포함시키고자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부모부양행동에 유의한 변인으로 나온 자녀수, 부모와의 물리적 거리, 부모의 경제상태, 자이존중감, 그리고 노부모부양의식 등을 독립변인으로 넣어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단계별 회귀분석결과 1단계에서 기혼교사의 부모부양의식(β =.372, p<.001)이 기혼자녀의 노부모부양행동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5.4%였다. 2단계에서 자이존중감이 투입되면서 1단계에서 노부모의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쳤던 변인인 부모부양의식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자이존중감(β =.205, p<.001)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추가되었으며 설명력은 19.4%였다. 3단계에서 추가로 투입된 부모와의 물리적 거리(β =-.107, p<.001)가 유의미한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3단계의 설명력은 20.5%로 2단계에 비해 1.1% 증가하였다. 즉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부양의식(β =.372)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이존중감(β =.205), 부모와의 물리적 거리(β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3개 변인에 의한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은 20.5%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노부모부양의식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기혼교사들의 노부모부양행동에 있어 부양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부양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현

대사회에서 노부모부양 책임을 지고 있으며 또 학교교육에서 가치관 교육을 전수하고 있는 기혼교사를 대상으로 노부모부양의식과 부양행동, 그리고 관련변인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총 293명의 중등학교 기혼교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98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의 하위영역은 경제적, 정서적, 서비시적 부양의식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관련변인은 성별, 부모와의 물리적 거리, 가족가치관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은 4점 척도에 평균 3.07점으로 보통수준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의 하위영역은 경제적, 정서적, 서비시적 부양행동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주는 관련변인은 자녀수, 부모와의 물리적 거리, 부모의 경제상태, 자아존중감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에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인은 부모부양의식으로 나타났으며,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과 노부모부양행동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양의식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최근 들어 노부모부양의식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나 바람직하게 생각된다. 특히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치관 전수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높은 부모부양의식은 미래사회의 노인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시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에서 성별 간에 차이를 보여 기혼남교사가 기혼여교사보다 노부모부양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사회에서 전통적인 가부장사회의 남아선호사상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교육을 받은 교사에게서 이런 성별차이가 남아있는 것을 볼 때, 노부모부양의식에 대한 성별차이는 쉽사리 변화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하겠다. 둘째,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이 보통보

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높일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에 비해 부양행동의 점수가 낮게 나타나 노부모부양의식과 실제적인 부양행동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는 기혼교사의 노부모와의 동거비율이 적어 부양행동이 낮게 나타났을 수도 있지만 중년기 세대에 속한 기혼교사가 위로는 노부모부양을, 아래로는 청년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샌드위치세대로서 부양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부양 관련 정책에서 기혼자녀의 부양행동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 하겠다. 셋째,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이 부양의식으로 나타나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을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을 높이는 대안으로 기혼교사를 대상으로 부모부양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문제를 가르치는 중등 가정교과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내용을 단원으로 추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는 최근 연구 보고된 윤인경 등(2005)의 연구에서 교과서의 노인에 대한 내용분석 및 교사용 노인교육자료 개발 등을 제안한 바와 같이 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의 노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척도는 표준화된 도구가 아니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노부모부양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경남지역 중등 기혼교사 중심으로 일반화에 제한점을 가지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안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가치교육을 전수하는 기혼교사를 대상으로 노부모부양의식과 부양행동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참고문헌

- 강유진·한경혜(1997). 비동거자녀의 노부모부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1), 271-288.
- 김경신·이선미(1998). 중년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감과 관련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9), 93-106.
- 김두섭·박경숙·이세용(2000). 중년층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 노후부양관. *한국인 구학*, 23(1), 55-89.
- 김명자·손서희(2005). 기혼자녀(아들·딸)와 부모간의 정서적 결속도에 따른 부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3(7), 37-51.
- 김명자·이윤정(1995). 성인자녀의 노부모부양 부담 정도와 부양에 따르는 부담감.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13(4), 125-137.
- 김미혜·신경림·강미선·강인(2006). 고령화 한국사회의 부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성 공적 노후 삶의 유형별 부양체계 분석을 통하여. *한국노년학* 26(3), 617-639.
- 김정석·김익기(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155-168.
- 김태현(1994). *노년학*. 서울: 교문사.
- 민무숙(1995). 노모와 성인딸/며느리간의 상호원조 유형이 부양부담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1), 74-90.
- 보건복지부(2005). 2004년 전국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
- 서소영·김명자(1998).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에 따른 보상, 부양의식, 부양행동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81-107.
- 서병숙·이신숙(1991). 농촌기혼여성의 노부모 부양의식과 부양수행도. *한국노년학* 11(2), 191-207.
- 신효식(1996). 노모의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자아존중감, 심리적순상간의 인과모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35-45.
- 오윤희·채정현(2003). 중학교 가정과교사의 가족가치관과 세 행동체계별 가족생활 영역 목표 요구도.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7(2), 239-255.
- 윤인경외 8인(2005). 교과서의 노인에 관한 내용분석 및 교사용 노인교육자료 개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7(1), 85-111.
- 윤현숙(2003). 노부모와 자녀간의 지원교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3(3), 15-28.
- 이가옥·이미진(2000). 장기요양보호노인 가족수발자의 정서적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2), 215-228.
- 전길양·김태현(1993). 노모와 성인딸간의 상호작용과 부양기대감. *한국노년학* 13(1), 17-38.
- 조경자·한동희·조은희(1996). 노부모와 기혼자녀의 동거관계에서 발생하는 세대간 갈등 과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6), 261-273.
- 조병은(2006). 주부양자녀와 형제자매의 지원이 노모와의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 과 재미교포자녀의 비교. *한국노년학* 26(1), 161-178.
- 최정혜(199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정혜(1994).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노부모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4(2), 25-36.
- 최정혜(1998). 기혼자녀의 효 의식, 가족주의 및 부모 부양의식. *한국노년학* 18(2), 47-63.
- 최정혜(1999).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의 세대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9), 85-101.
- 최정혜(2006).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 *대한가정학회지* 44(6), 47-58.
- 통계청(2006). <http://www.nso.go.kr>
- 한경혜(2004). 세대간 지원교환유형과 성인자녀의 심리적 복지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135-152.
- 한경혜·윤성은(2002). 한국성인 남녀의 부양지원 제공실태와 특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65-73.
- 한민아·한경혜(2004). 세대간 지원교환유형과 성인자녀의 심리적 복지감. *한국가족관계 학회지*, 9(1), 135-152.
- 한은주·최배영(1997).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본 부모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2), 373-383.
- Aquilino, W. S. & Supple, K. R.(1991). Parent-child relations and parent's satisfaction with living arrangements when adult children live at hom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1), 13-27.
- Bengston, V. L.(1989). *The Problem of generations: Age group contrasts, continuities, and social changes*, 25-54, (In) *The Course of Later Life*. V. L. Bengtson, and K. W. Schaie(Eds.)New York: Springer.
- Choi, J. H. & Yoo, T. M.(2001). Comparison of married-children's behavior and consciousness living in rural and urban areas for supporting their aged parents. *Journal of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Home Economics*, Vol.8(3), 125-131.

Dewit, D. Wister, A. & Burch, T.(1988). Physical distance and social contact between elders and their adult children. *Research on Aging*, 10, 56-80.

Lerner, M. Somers, D. G. Chiriboga, D. & Tiemey, M.(1991). Adult children as caregivers: Egocentric biases in judgements of sibling contributions. *The Gerontologist*, 31, 746-755.

Tompson, L. & Walker, A. J.(1984). Mother and Daughters: Aid patterns and Attach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2), 313-322.

Walker, A. Pratt, C. C, & Nancy, C. O.(1992). Perceived reciprocity in family caregiving. *Family Relations* 41(1), 82-85.

<국문요약>

이 연구는 기혼교사들의 노부모부양의식과 부양행동 및 관련변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남지역의 중등 기혼교사 293명이며,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98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에 유의한 관련변인은 성별, 부모와의 물리적 거리, 가족가치 관 등으로 나타났다.
2.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은 4점 만점에 3.07로서 보통수준 이상으로 나타났 으며,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에 유의한 관련변인은 자녀수, 부모와의 물 리적 거리, 부모의 경제상태, 자아존중감 등으로 나타났다.
3.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과 노부모부양행동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4.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부양의식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은 높게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노부모부양행동도 보통수준이상으로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노인문제가 심화된 사회를 살아갈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노부모부양의식이나 부양행동이 좀 더 강화되어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노부모부양 가치관을 심어주었으면 한다.

■논문접수일자: 2007년 3월 31일, 논문심사일자: 2007년 5월 25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6월 28일